

# 광주 하남·진곡·평동산단 긴급 지원

### 중소벤처부, 중기 특별지원지역 지정... 입주 기업에 경영자금 80여 협력업체 한숨 돌려... 고용위기 지역 신속 지정 요청도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 하남·진곡·평동 산단 내 입주 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광산구 하남 산단, 진곡 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은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우위니

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청했다. 중소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확정했다.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는 80여개 사가 밀집해 있으며 피해액만 31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 규모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대우위니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주시와 물밑에서 힘써준 지역 정치권, 간절한 호소에 신속한 결정으로 응답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산구는 그동안 대우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시는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조도와·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 원을 활용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추경 내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 편성 등 협력업체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주 시립 2요양병원 운영 공백 우려

###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다음달 만료...市, 새 수탁자 모집

광주시가 시립 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 수탁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수탁자인 전남대학교병원 요청에 따라 12월 31일 자 위탁계약 종료로 사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개원 후부터 10여년간 운영을 맡았다가 지난 7월 31일 기한이 만료됐지만,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의 요청으로 6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이 공백 없이 운영되려면 다음 달까지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하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공익적 비용 지원 등 위탁 조건을 개선해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신청한 의료기관은 없었다. 광주시는 노조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수탁 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공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지역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 직원 고용 승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인력 증원 승인이 어렵고, 산하기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탁 계약 종료 후에도 광주 요양병원이 과포화 상태라서 의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노조와 상생 방안 마련, 새 수탁자 모집 등 운영 정상화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숨은 맛집을 찾습니다

### 市, 이달말까지 접수...맛집 지정패 부착·컨설팅 등 혜택

광주시가 미향 광주를 대표할 '숨은 맛집'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2024년도 광주 맛집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 및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희망업소 신청과 시민·전문가 추천 방식으로 우수 음식점을 모집하고 음식의 맛·차림새,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 서비스,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3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음식 전문가·학생·관광중보자·소비자 등 평가위원을 5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광주온(gwangjuon.gwangju.go.kr)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서 영업신고한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받은 업소, 전국 프랜차이즈 업소(본점의 소재지가 광주시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주 맛집' 선정업소에 지정패 부착과 함께 경영컨설팅, 시설개선 용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맛집지도 제작, 광주문화관광 누리집 등 광주시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광주시 관광도시과, 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신청(추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 관광도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bubble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어요" 아동폭력예방주간(11월19일~11월25일)을 맞아 21일 광주 북구 건국동 한 대형마트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관련기관,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전남자치경찰위, 자치경찰 시책 점검

### 종합감사 결과보고 등 9건 심의·의결... 지자체 협업 해결 사례 발굴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0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무안·강진·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보고(안) 등 9건의 안건을 보고 및 심의·의결했다.

이번 자치경찰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는 지난 9월-10월 감사를 실시했던 무안·강진·진도경찰서

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아동안전지킴 선발·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 위원회 추진 시책을 중점 점검해 시장·주요 등 18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해 불법 정차하고 있는 사례

를 지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에 집중했다. 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방지 사유지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했다.

또 지난달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범죄예방·대응에 특화된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전남 광역 기동순찰대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계획에 대해서는 동·서부권 2개 권역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전남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야간관광 축제·행사 제도적 기반 마련

### 흥기월 시의원 조례안 심의 통과

광주시민의 특색을 살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야간관광 축제와 행사 운영 등 진흥 사업을 명시한 조례 발의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흥기월(민주·동구1) 의원의 대표발의한 '광주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1조 3592억원이며, 취업 유발 효과는 1만 58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사직

공원 전망대, 잣고개 야경 등 광주야행을 주제로 야간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크지 않아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지역 야간관광 진흥을 위해 야간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기본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또한 ▲야간관광 축제·행사 운영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활성화 ▲야간관광 안내 시스템 개발 ▲홍보 체계 구축 등도 규정했다.

흥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광주의 경관과 야간 관광 자원을 집목에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를 매력적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